

# 신기술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업계 선도

## 고속테이핑기, 제함기 등 개발 국내 포장자동화 이뤘

국내 포장자동화부문의 선두주자라는 포부를 안고 발전하고 있는 (주)삼원팩(대표이사 성경락, 윤석기)은 미래 첨단 자동화사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 아래 'Think Big Player' 라는 슬로건으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제함기 및 고속 테이핑기 전문 업체이다.

1992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설립된 (주)삼원기계는 이듬해 공장 자동화 테이핑기와 FLAP FOLDING & TWO STRAPPING M/C를 대량생산, 포장기계류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1993년 충남 산지유통센터에 10개 포장설비 및 차압예냉기 설치를 시작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삼원은 1995년 식품포장 기계 개발을 시작하면서, 파렛트 수직·수평 결속기와 컨테이너 이동식 차압예냉고, 홈쇼핑 박스 포장 전용기계, 식품 포장박스 전용 기계 등을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처에 공급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삼성가전 해외공사 부문에 참여를 시작으로, 2003년 서울 강북정수장에 아리수 PET병에 대한 포장라인 설비, 삼성전자 LCD, POP 동구권 해외공장 포장설비 등에 참여했으며 2005년에는 LG전자 중남미 공장 포장설비를 완료하고 2006년에는 국내 최대의 경기

도 안성 산지유통센터에 포장물류설비를 완공, 현재는 영주 산지유통센터 포장물류설비를 진행 중에 있다.

이미 1995년 일반결속기, 파렛트 수직, 수평결속기에 대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삼원에 대한 평가는 대내적으로 인정받아, ISO 9001 인증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농림부로부터 유통 구조 개선사업부문 선정업체로 지정, 4년간



▲ 삼원팩은 매년 포장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 SAMWON

감자박스 포장결속기를 공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자동제함기, 자동테이핑기, 자동결속기, 자동랩핑기의 4개 부문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물류표준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LG전자 인도네시아 공장에 포장결속라인을 수주받아 수출했으며 2001년 일본 쇼켄 바나둠 생수 박스 자동 포장라인과

2002년 대우 인터내쇼날 중국천진공장 자동 박스 포장라인을 수출하고 두바이와 수단에 박스 봉합기 중동지역 30여대를 수출함으로써 10만불 이상의 매출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란 테헤란시 국영TV 제조 업체 SANAM IND. TV 자동 포장 결속라인 등을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쾌거로 서울시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삼원팩은 2005년 (주)삼원팩으로 상호를 변경, 현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공장과 본사를 마련, 자동화 구현설비 시연장을 구축하고 있다.

삼원팩은 현재 자동제함기와 봉합기를 비롯해, 랩핑기, 전자동봉합기, 전자동랩핑기, 결속기, 전자동 결속기, 파렛트 수평, 수직결속기, 필름포장기, 진공포장기, 이송컨베이어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물류자동화 시스템 컨설팅에도 주력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가운데 삼원팩의 제함기 SWBS-1000N은 종이박스를 자동으로 제함하는 설비로 진공패드 흡착 성형방식이다.

최소한의 구조로 간단히 설계되어 소음이 없고 연속적인 자동운전 메카니즘을 통해 부드럽고 완벽한 제함 및 하면 봉합작업을 보장하는 장점이



▲ 삼원팩의 고속테이핑기

있으며 지속적인 벽수 공급이 가능한 매거진 구조와 부드럽고 정확한 박스 공급을 위한 LATCH GEAR 구동 방식의 채택과 박스 규격 변동에 따른 기계대응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작업손실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삼원팩의 자랑거리인 고속테이핑기 SWTM-2000N은 랜덤형 고속 자동 접지 및 I-TAPE 봉합기계로 세련된 구조를 지녔다. 다양한 규격의 박스 제품의 신속하고 완벽한 무작위 테이핑 봉합포장을 보장함으로써 포장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대용량의 내구성 기계이다.

여러 라인에서 생산하는 규격제품을 1개 라인으로 통합하여 포장 하고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무작위로 생산될 경우에 적합하다. 특히 제품규격의 분포에 대한 기계적 대응은 무인으로 자동 조정되며, 물류형태와 무관하게 제품 FLOW의 자동조정 기능도 갖추고 있다.

1995년 이후 매년 포장전문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효율적인 마케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삼

원팩은 “현재 하루에도 많은 업체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한 없어지는 현실에서 미래만을 향한 기업이 아니라, 도자기 하나에 혼을 불어넣고, 노력갯감 하나에 이름을 새기던 옛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깃든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공동 대표이사들의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빠른 대응으로 항상 최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삼원팩 관계자는 “전 직원이 20대~30대인 특징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정신이 충만한 기업을 표상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내면서 “특히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고객을 우선하는 설계로 가장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컨설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 첨단 자동화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전하는 삼원팩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박초혜 기자



▲ 삼원팩의 제함기

# 신개념 포장 출시로 새로운 패키지 문화 형성

## 백타입 케이스로 특허 획득, 매출 신장



이 종 상  
(주)한진피앤씨 대표이사

갈수록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편리함과 간편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미려한 디자인을 추구함에 따라 포장 업계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아이디어와 제품개발부의 노력끝에 신개념 포장케이스를 출시한 (주)한진피앤씨(대표이사 이종상). 1971년 창업한 이후 생활용품, 식품, 제과, 정보미디어 관련 제품을 비롯한 국내 우수 고객의 패키지 및 상업 인쇄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한진피앤씨는 자타가 공인한 국내 인쇄업체의 선두그룹이다.

이 회사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쇼핑백과 케이스가 결합한 일체형 백타입 케이스를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 신개념 패키지 문화를 선보였다는 것에 있다.

백타입 케이스는 영업부에서 영업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간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



▲ 2008 코리아팩 참가한 (주)한진피앤씨 부스



▲ (주)한진피앤씨 본사 전경

겨난 아이디어로서, 제품 포장에 따른 시간, 비용, 인력 낭비를 줄일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패키지로 2006년 처음 탄생하게 된다.

같은 해 오투기축은 추석과 설에 내놓은 포도씨유와 올리브유 선물세트에 한진피앤씨의 백타입 케이스를 최초로 적용,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매출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신개념 포장으로 교체함으로써 결국 매출 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

새로운 시장의 잠재성과 상

업성을 체험한 한진피앤씨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올해 1월 백타입 케이스의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한진피앤씨가 특허를 낸 백타입 케이스는 쇼핑백과 케이스가 결합된 일체형 구조로 구성돼 있다. 서랍식으로 만들어진 상자에 끈을 단 포장으로 쇼핑백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소 소비자가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쇼핑백에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별도의 쇼핑백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상, 하 뚜껑 식으로만 되어 있는 선물세트 형태는 사용이 불편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내용물만 꺼내고 바로 버리게 되어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백타입 케이스는 쇼핑백이 필요없으며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 내용물을 꺼내기가 편리하다.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형태가 서랍형이지만 열때 서랍이 빠져 제품을 떨어뜨리는 단점 때문에 그동안 포장형태로는 외면당해 왔으나 백타입 케이스는 안에 잠금장치 효과

## HANJIN P&amp;C

를 부여하여 이러한 문제를 깨끗이 해소한 것.

이러한 서랍형 단점을 보완한 잠금장치 효과 때문에 그동안 사용을 기피하던 병제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식품, 주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선물세트포장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백타입 케이스는 헤드부분의 입체효과를 이용해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진열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보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고 난 후에는 별도의 수납장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영업과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윤주호 부장은 “백타입 케이스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현재 미국의 마케팅 회사와 특허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와인선물세트에 적용,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조만간 PCT출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20개국에 국내 특허 단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에 백타입 케이스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굴지의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제 전 산업에 걸쳐 활용 가능한 만큼 백타입 케이스를 신발업체인 무크에서 이미 적용한 경험을 살려 적재 공간 부족의 단점과 기능성을 보완해 이를 계기로 신발박스 분야에 한진피앤씨의 케이스를 세계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서도 한진피앤씨는 신개념 패키징인 백타입 케이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있는 제품 개발로 다시 한번 회사의 도약을 맞이한 셈.

뿐만 아니라 한진피앤씨의



▲ (주)한진피앤씨가 개발한 백타입 케이스



▲ (주)한진피앤씨 생산설비

인쇄사업부는 국내 최고의 현대설비와 기술로 국내 우수업체 및 미국 등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어 바야흐로 Art Printing을 목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생활품의 중간재인 통기성 필름의 경우 1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여성생리대의 개별포장을 간소화한

윈터치필름은 고객사로 하여금 생산공정단계와 자재를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현재 전 세계에 확대일로에 있다.

기업의 성장은 첨단 기술력과 최고의 인재라는 명제 아래 한진피앤씨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끊임없는 신소재개발 등의 R&D 활동과 전사원 인재 육성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는 산업이 침체되더라도 기업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이종상 회장의 신념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 (주)한진피앤씨 생산설비

이한얼 기자